

## 한국 곤충의 분류학사와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sup>1)</sup>

김진일<sup>2)</sup>  
성신여대 명예교수

### 들어가기

한국 곤충의 분류학적 연구는 19세기에 서구인들이 처음으로 시작하였고,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우리 국토를 강점했던 일본인들이 계속하였다. 이렇게 서구와 일본인에 의한 시대가 어찌면 우리 곤충 분류학사의 잉태기일 것이며, 그 내용은 몇몇 인사에 의해 소개되었다. 그 내용을 필자가 반복할 필요는 없기에 간단히 축약하여 나열만 하련다. 최초의 순수 한국인 곤충학자는 조복성(趙福成)과 석주명(石宙明)이다. 조는 주로 한국과 만주지방의 딱정벌레목을, 석은 한국산 나비를 연구했는데 많은 부분이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졌다. 그 내역도 거의 알려졌기에 상세한 설명은 보류한다. 한편 서양인에 의한 시대를 우리 곤충분류학사의 여명기(黎明期), 1930,40년대를 태동기(胎動期)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6.25 동란을 거친 뒤 여러 한국인 곤충학자가 출현하여 우리 땅의 곤충상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이 시대(주로 1960, 1970년대)를 일단 개척기(開拓期), 다음의 젊은 학자들이 특정분류군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1980년대 또는 1990년대 이후의 현재를 활동기(活動期)라고 해두자. 물론 현금의 심층연구도 순

수한 알파분류 시대, 계통을 추적하는 베타 분류 시대, 후자의 경우를 핵산분석에 초점을 맞춘 분자생물학 시대(2000년대 이후) 등으로 세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방법론적으로 세분된 연구의 성격을 다름은 물론, 현시점에서 현재의 활동을 다루는 것 자체가 적절치 못하므로 활동기에 대한 분석도 보류한다.

이 글은 우리 곤충학사 분석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고 함)가 그것에 끼친 영향을 알아봄이 목적이므로 개척기의 대표 학자와 업적도 축약하여 나열하련다. 대표학자의 선정은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으나 여기서는 단순히 연령을 염두에 두어 필자까지로 한정하련다. 즉 필자 이후는 활동기의 인사로 취급한 셈이다.

협회가 우리 곤충분류학사에 가장 크게 미친 영향은 아무래도 신 분류군의 발견에 기여한 점일 것이다. 협회의 조사나 연구 사업에 참여한 학자는 대개 미기록종을 많이 보고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가 그 내용을 모두 파악하거나 총괄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더욱이 그들의 조사 배경이나 어떤 활동까지 알아내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필자가 참여했던 조사나 연구 내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 중심으로

1)Influence of KACN on the Systematics of Korean Insects  
2)KIM, Jin Ill, Professor Emeritus, Sungshin W. University

글을 엮어보려다. 이런 내용이 후학에게 어떤 의미를 줄지는 모르겠으나 그 기록이 어디에도 남겨지지 않았을 때, 때로는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겠기에 이 기회를 이용한 것이다.

## 한국 곤충의 분류학사

### 여명기

한국 곤충의 최초기록 : 삼국시대 이래 여러 의약관련 책자, 조선왕조실록, 이수광의 지봉유설(芝峰類說 권20, 1633) 따위에 솔나방, 멸강나방, 이화명나방, 뽕나무명나방, 벼멸구, 풀무치, 땅강아지 등의 농업해충 또는 약용곤충이 등장하나 학명의 확인도, 분류학사에서 취급될 내용도 아니다.

현대 과학적 최초기록 : Tatum이 1847년에 신종 *Carabus monilifer*(제주도산, 제주홍단딱정벌레=*C. smaragdinus monilifer*의 동물이명)를 영국 박물학잡지에 기재.

1800년대 : Perry(영국 해군, 1881년 Iron Duke호로 내한, 인시류 채집), Carpenter(영국 해군, 1882년 인시류), Adams(영국 의사, 1843-1846년 제주도 딱정벌레, 벌, 인시류 등), Gottsche(독일 지질학자, 1882-1884년 딱정벌레), Herz(독일 곤충학자, 1884년 인시류, 딱정벌레, 반시류), Kalinowski(국적?, 1885-1888년 벌목), Leech(영국 인시류학자, 1886년 인시류, 쌍시류 등), Jones(국적?, 1890년 직시류), Komarov(러시아 식물학자, 1897년, 1926년 주로 반시류), Fletcher(영국 곤충학자, 1896-1899년 반시류, 직시류, 인시류 등), Taquet(프랑스 선교사, 1897년 주로 딱정벌레류) 등이 내한하여 채집.

Butler(1882, 1883) : 한국 최초로 한반도산 나방류 16종 발표.

Kolbe(1886) : Gottsche의 채집품으로 딱정벌레목 최초 연구, *Misolampidius morio* 등의 22 신종을 포함한 22과 142종 보고.

[Gottsche 채집품은 Bates(1888), Kraatz(1888), Reitter(1890-1893), Fairmaire, Sharp, Pic, Heyrovsky 등 여러 학자가 연구.]

Fixsen(1887) : Herz의 채집품으로 나비 93종, 나방 82종 보고.

Leech(1894, 1897, 1881, 1888, 1889, 1891, 1901) : 본인 채집품 등으로 나비 114종 보고.

1900~1930년대 채집자 : Scarlet(영국 부인, 1900년 벌, 딱정벌레목)부터 Barrell(미국 곤충학자, 1932년 기생봉)까지 서양의 군인, 선교사, 외교관, 생물학자 등 20인 정도가 내한하여 다양한 곤충 채집.

### 태동기

주로 1930년대에 국내 연구기관이나 학교에서 근무한 소수의 일본인 및 일본에 거주하는 여러 일본인에 의해 다양한 종류 연구. 대표적인 학자는

Okamoto H. (岡本半次郎) : 1920년대 초부터 수원농사시험장(水原農事試驗場)에서 일반 곤충 연구. 제주도 곤충상 발표, 잎벌아목에 관심이 많았음.

Nakayama S. (中山昌之介) : 1920년대 말부터 수원농사시험장에서 주로 농작물 해충 연구, 분류학적 연구보다는 해충 목록 추가에 많은 업적.

Doi H. (土居寛暢) : 과학관(科學館) 촉탁 연구원, 1930년대 전반부는 국내 여러 지역에서 발견한 다양한 곤충의 단보 발표. 1931, 32년에 반딧불이 2신종 기재. 1937~1943년 한국산 잠자리목 총 정리.

Saito K. (齊藤孝藏) : 1920년대 말부터 수원고농(水原高農)에서 다양한 산림곤충 연구.

Murayama J. (村山醸造) : 1930년대 초부터 임업시험장(林業試驗場)에서 산림곤충 연구, 특히 풍뎡이류의 연구가 많았고, 만선금귀자도설(滿鮮金龜子圖說, 163 pp, 6 pls., 1954)에서 한국과 만주산 검정풍뎡이과를 총 정리.

Takagi G. (高木五六) : 1930년대에 임업시험장에서 산림곤충 연구.

Mori T. (森爲三) :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 예과(豫科) 교수, 어류학자, 조복성의 보조로 인시류, 직시류, 매미 등의 논문 발표.

조복성(趙福成) : 1929년 한국인 최초의 곤충학 논문 “울릉도산 인시목 곤충(鬱陵島産鱗翅目)” 발표. 1934년 한국 나비도감(原色朝鮮の蝶類) 발간, 1943년까지 주로 한국과 만주지방의 딱정벌레목에 관한 논문 58편 발표. 이후는 개척기의 업적 참조 바람.

석주명(石宙明) : 송도중학교 교사, 1932년부터(조선구장지방산 접류목록) 한국산 나비에 관한 논문 79편 발표.

在 일본학자 : 松村送年(인시류), 河野廣道(벌목), 松下眞幸(하늘소), 新島善直(풍뎅이), 玉貫光一(하늘소과), 江崎悌三과 杉谷岩彦(나비), 安松京三과 竹内吉臈(벌목), 上野益三(수서곤충), 朝比奈正二郎(잠자리), Kono(바구미); 대북제국대학(臺北帝國大學) 근무자 : 水戸野武夫(하늘소과), 中條道夫(잎벌레과), 三輪勇四郎(방아벌레과) 등.

### 개척기

조복성(趙福成) : 해방 후 국립박물관, 1955~1970년 고려대학교에서 툴도기, 잠자리, 매미, 하늘소, 메뚜기, 딱정벌레, 잎벌레 등의 Monograph 또는 다양한 성격의 논문, 금강산, 울릉도 동물상 발표, 3권의 한국동식물도감(문교부, 제1, 2, 4권) 발간, 학생과 일반인을 위한 다수의 동물학, 곤충학 관련 저서와 5종의 대학교재 발간, 설악산, 한라산, 홍도 등의 곤충상 조사 보고는 협회가 실시한 종합조사보고서의 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백운하(白雲夏) :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서 농업해충 외에도 다양한 곤충의 분류 논문 발표, 진딧물상과에 대한 한국동식물도감[제

13권(곤충V), 제22권(곤충VI)] 발간.

김헌규(金憲奎) :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덕적군도 곤충상(1956, 1958), 오대산 나비(1959), 설악산 나비의 수직 분포(1959), 설악산의 곤충 목록(1960) 등의 논문 발표. 1958년에 학술잡지 “한국응용동물학회지”를 창간하였으나 1960년까지 발행.

김창환(金昌煥) : 한국산 맵시벌(1955, 1958), 땅벌의 사회적 변이(1956, 1959), 제주도의 막시목(1957), 한국산 벌(1963) 등의 벌목 논문 다수, 꽃등에과 미기록종(1972, 1983) 등의 기타 논문 다수, 3권의 한국동식물도감(제11, 12, 26권) 및 3권의 한국곤충분포도감(1976, 1978, 1980) 발간. “한국곤충학회” 창립(초대회장). 협회 종합조사단 구성에 11회 참여.

남궁준(南宮竣) : 충북 무극중학교, 서울 청운중학교 수학 교사, 한국 최초로 동굴 곤충 가로와벌레목(=귀뚜라미부치목)의 신종, 동굴성 먼지벌레 신종들을 발표한 동굴 곤충의 권위자, 거미류도 다수의 논문 발표 및 도감 “한국의 거미”(647pp. 2001년) 발간.

이승모(李承模) : 국립과학관에서 설악산 나비(1971, 1973), 한국산 나비 목록 정정(1973) 등의 나비 논문 발표. 나방류, 하늘소과의 자료 다수 발표, 한국동식물도감(제26권) 집필, 곤충지 하늘소과(1987) 및 잠자리목(2001) 발간.

이창언(李昌彦) : 경북대학교에서 반시류(매미목, 노린재목) 논문 다수 발표, 2권의 한국동식물도감(제12권, 23권) 발간. 협회 조사단 구성에 3회 참여.

신유항(申裕恒) : 경희대학교에서 광릉(1959), 덕유산(1960) 나비, 나비 생활사(1970) 등의 논문 다수 발표, 한국동식물도감(제27권) 및 2권의 한국곤충도감(나비 1989, 기타 1993) 발간, 협회 조사단 구성에 10회 참여 및 “연구보고서”와 “자연보존”에 논문 다수 발표.

구건(具建) : 서울농업대학(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명지산(1963), 오산지방 곤충상(1966), 딱정벌레목 농림해충(1973) 등의 논문 발표, 파브르곤충기 번역(삼중당, 1975).

박성호(朴星湖) : 경북대학교에서 쉬파리과, 집파리과 등 유관류(有瓣類)에 관한 논문 다수 발표. 한국동식물도감 제12권(곤충IV)의 유관류 집필.

이택준(李澤俊) : 중앙대학교에서 초파리 연구. 한국동식물도감 제12권의 초파리과 집필.

이관우 : 국립보건의연구원에서 위생곤충 연구. 한국동식물도감 제12권의 모기와 집필.

윤일병(尹一炳) : 하루살이목, 강도래목 등의 수서곤충 논문 발표. 한국동식물도감 제30권(수서곤충X) 발간.

이병훈(李炳勛) : 툇도기목의 신분류군 다량 발표. 동굴성 육각류(六脚類) 연구의 기초 제공. 많은 연구 전북대학교에서 수행함.

우건석(禹建錫) :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서 총채벌레목 연구. 미기록종 16종을 포함한 53종 한국곤충학회지(1974)에 발표.

김진일(金鎭一) : 다량의 신 분류군 보고(다음 기사 참조). 해안 사구성(砂丘性)곤충 최초 연구(1979~2005). 분식성(糞食性)곤충(1981~1994) 및 풍뎅이상과의 분류학적 연구(1984~현재), 한국산 똥풍뎅이과 9종과 지중해안 모래풍뎅이의 유충 기재, 한국 및 프랑스 소똥풍뎅이 26종 유충 기재 등의 논문 170편. 환경부 등의 지역 조사보고서 등 40편 발표. 일반곤충학(一般昆蟲學, 2000), 풍뎅이상과(상, 하 : 2000, 2001), 우리곤충100가지(2002) 등의 저서 15권 발간. 파브르곤충기(원전) 10권 완역(2006-2010).

## 필자의 활동

1. 신분류군의 발견이 나를 곤충학자로 만들다  
필자는 협회의 초기 사업이던(1967년) 비

무장지대(DMZ) 조사원으로 활동하면서, 또한 울릉도 조사(1971)에 참여하면서 곤충분류학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첫 보고서인 울릉도에서는 6 미기록종을 발견했고, DMZ에서는 1972년도의 보충조사까지 합쳐 13목 156과 745종의 목록을 보고하였는데(1974) 그중 매미목과 파리목 각 1과 및 6목의 42종을, 소금강 및 오대산 조사에서 2과와 16종(1971)을, 무주구천동에서 3과와 48종(1972b)을 한국에서 처음 기록하였으며, 이런 성과에 따라 곤충 연구에 엄청난 흥미를 갖게 되었다.

이후의 수많은 조사 사업은 물론 연구 사업인 수동면 조사에서도 1과와 30종(1981)을 기록하였다. 사구성 곤충은 개인 연구를 합쳐 9과와 55종을 발견했다. 결국 필자가 협회와 인연을 맺어 찾아낸 신 분류군은 4목에 걸친 20과와 11목의 271종으로서, 필자의 전체 기록 수의 2/3에 해당한다. 271종의 구성은 딱정벌레목이 가장 많은 185종, 다음은 파리목 38종, 벌목 22종의 순이었다.

필자가 독자적으로 처음 보고한 신기록 종은 파리목의 꼽추등에과 1종과 꽃등에과 17종(1972), 등에과 3종(1975) 등이다. 꽃등에는 7회에 걸쳐 총 36종을 기록했는데 한국동식물도감(곤충편 III)에 처음 실린 20종도 사실상 필자가 찾아낸 것이다. 그동안 필자는 협회 외에도 한국자연보호중앙협의회, 환경부(정밀조사), 문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인연을 맺었거나 개인 연구에서 80 지역과 50개 도서지방을 조사하였고, 새로 찾아낸 분류군의 총 수는 5목에 걸친 신종 27, 신아종 4, 미기록과 29, 미기록종 411종이었으며, 그중 26 신종(1980-2003)과 4 신아종(1985-2003)은 딱정벌레목이었다.

## 2. 협회의 사업과 나의 참여

협회 약력

우리 협회는 1963년 12월 “한국자연 및

자연자원보존학술조사위원회”라는 긴 이름으로 출발하였다가 1965년에 ‘한국자연보존위원회’로 개명하여 비무장지대(DMZ) 종합학술조사를 실시하였고, 협회의 성격에 따라 또는 환경부의 영향을 받아 ‘한국자연보존연구회, 한국자연보존협회’ 등의 명칭을 거쳐 현재와 같은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가 되었다. 설립 직후인 1964년도에 실시한 한라산, 설악산, 홍도 지역 종합학술조사 결과는 국립공원 지정의 자료를 제공한 셈이다. 1967년에는 미국 Smithsonian 연구소와 공동 연구과제로 DMZ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현지 조사의 어려움에 따른 성과 미비에다 북괴 김신조의 1.21 청와대 습격사건까지 겹치자 조사비 지원이 중단되었고, 결국은 1968년 6월까지로 현지조사가 끝났다. 1972년도에 문화공보부의 후원으로 추가조사를 하여 1974년에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DMZ 조사는 1987년과 1990년에도 있었는데 이때의 운영은 내무부 산하 기구인 “한국자연보호중앙협의회”의 몫이었다.

#### DMZ 종합학술조사

한국자연보존위원회 공문 66014호는 “1966. 10.~1967. 10월 한국 측의 DMZ 조사계획”으로서 조사원 구성과 현지조사 일정에 관한 것이다. 조사원은 13개 반에 전문위원 1명, 연구위원 1~2명의 총 34명이며, 반별 명단은 김준면(강상준, 장남기), 김봉균(박용안), 박만규(정인수, 박흥덕), 이일구(차영일), 정영호(강영무, 심재형), 이영노(이유성), 김창환(김진일, 오진국), 윤일병(김건, 문광웅), 원병휘(김운산, 이혜풍), 원병오(전미자, 함규환), 최기철(정상린, 최신석), 홍순우(최영길), 강영선(방규환) 등이다.

1966년 10월은 16-19일에 김봉균, 박용안, 박만규, 박흥덕, 노용태(곤충), 김운산, 이혜풍, 최기철, 정상린, 최신석, 방규환, 25-26일

에 정영호, 윤일병, 홍순우 등의 9개 반 14명의 예비답사가 있었고, 1967년은 각 반에게 60일씩 현지조사가 배정되었는데 개인별, 월별 일정은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하지만 계획과 현실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 조사 일정에 변화가 있었고, 반에 따라서는 연구위원의 교체도 있었다.

육상곤충의 1967, 1968, 1972년도 현지조사의 활동 내용을 표 1에 요약하였고, 시대적 활동상과 비교하기 위해 1987년도의 경우도 첨부하였다. 표를 분석해보면 1967,68년에 총 106일을 조사하였고, 활동이 많이 수월해진 1972년도까지 합쳐 연인원 30명이 총 129일 동안 13목 약 1,000종 4,800개체를 채집하였다. 20년 뒤인 1987년도는 2명이 11일, 즉 총 22일간의 조사에 불과했어도 14목 약 600종 2,365개체를 채집하였으니 과거의 조사 실적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비교가 된다. 1990년 8월 대암산 조사 때는 높지와 정상 사이에 만발한 각종 꽃에 엄청난 꽃등애를 비롯한 파리목, 호박벌 등의 벌목, 꽃하늘소, 잎벌레 등의 딱정벌레가 운집하여 채집을 하다 지칠 정도였다.

초기조사 결과가 극히 저조했던 이유는 활동에 제약이 너무 많아서였다. 구체적인 제약 내용은 조금 뒤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조사 경비도 살펴보자. 표 1을 보면 두해동안 26,220원과 23,900원의 총 5만여 원을 지출했다. 당시 물가를 가늠하고자 68년 6월 12일자 화천 해동여관에서의 예를 보자. 한 끼 식사는 100원, 하룻밤 방값은 독실 250원, 2인 400원, 3인 500원이었다. 요즈음이라면 식비는 적어도 50배, 방값은 100배 이상 지불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경비는 순전히 숙박비와 약간의 소모품 비뿐이다. 필름은 본부에서 지급했고, 교통편도 본부에서 2대의 9인승 Wagon을 운영하였다. 더 큰 비용은 인건비였다. 각 연구위원에게는 매월

**표 1. 필자의 DMZ 육상곤충 조사 (Table 1. Surveyed Terrestrial Insects in DMZ by Author)**

<b>1967년</b>	
6월 2-6일, 조사- 김창환, 오진국, 김진일(필자), 경비(곤충반 소모품, 숙식비): 4,180원 * 2일: 麟蹄 加兒里, 3일: 楊口→廣峙嶺입구→方山面 석곡령(504 OP)→楊口저수지주변, 4일: 504高地입구(양구 軍糧里), 5일: 春城郡 楸谷里, 6일: 華川 Dam주변(看東 九萬里)	
6. 16-20: 필, 5,080원 * 16: 12사단 도착(교섭 안됨), 17: 高城 乾鳳寺주변, 18: 杆城 屹里(진부령)→七切峰→香爐峰, 19雨: 51연대 주변, 乾鳳山, 20: 楸谷里도로→약수터	
8. 21-25: 오, 필, 5,260원 * 21: 漣川 旺澄面 江西里, 22: 白鶴 내동리, 沙尾川주변, 23雨: 長湍面 장골, Nylon橋 건너 고랑포 방면, 24: 甘岳山(坡州 積城面 사계말), 25: 沙尾川→Nylon橋	
8. 28-9.1: 3인, 7,080원 * 28: 20사단 60연대→大光里, 29: 구鐵原 중어성 답사, 石多洞 채집, 30: 연대 주변, 31: 高臺山(漣川 新西面), 1: 全谷, 초성리, 20사단, 동두천 거쳐 귀경	
9. 16-20: 김, 오, 3,480원 * 16: 12사단→元通里숙박, 17, 18: 진부령→향로봉, 19: 乾鳳山, 20: 加平 화악산	
9. 29-10.3: 필, 1,140원 * 29: 3軍團사령부 거쳐 楊口도착, 30: 大岩山 큰용늪 주변(6목 24종 56개체 채집), 1雨,濃霧: 66연대 주변, 2: 大岩山 큰용늪 주변(7목 22종 41개체), 3: 楊口→귀경	
<b>1968년</b>	
4. 5-7: 오, 필, 3,200원 * 5: 우미동 답사, 6: 관우리→Ice cream고지, 山井湖水, 7: 화천 翰墨嶺→B1초소(水上里)	
5. 5-9: 3인, 5,200원 * 5: 漣川도로변, 6: 全谷→二東 순환뿐, 7: 大成山정상, 8: 大岩山 큰용늪	
5월 24-28: 오, 필, 3,800원 * 24: 楊口 죽곡리, 25雨: 설악산(濃霧, 700m下山 五色里), 26雨: 新興寺주변, 27曇, 雨: 香爐峰, 28: 남양주 水洞; 오- 24-27: 襄陽 西面 약수리, 27,28: 향로봉	
6. 10-12: 필, 華川(海東旅館): 食費 100, 宿泊1室 1人 250, 2人 400, 3人 500원 * 10: 八堂→兩水里, 淸平Dam(주루 수질조사 sites), 11, 12: 華川 九萬里	
6. 15-18: 3인, 8,200원 * 15: 3군단→元通, 16: 香爐峰, 17: 五臺山, 18: 雉岳山 天然洞窟근처	
<b>1972년</b>	
9. 26-29: 필, 노용태 * 26: 元通着, 27: 屹里→七切峰→香爐峰, 28: 高城 명파리, 29: 乾鳳寺	
10월 4-7: 필, 6,7일, 노 * 5: 돌산령↔兜率山,大岩山, 6: 軍糧里504OP→五味里, 7: 天尾里,頭陀淵	
10. 8-10: 김, 필, 신유향 * 8: 坡州 리비橋→송악OP→자유의 다리, 9,10: 오전 전진목장, 오후 리비橋 주변. * 송악 OP에 유인된 약 30종 70개체 채집, 다른 지역 채집은 매우 빈약했음.	
<b>이상 3년간 총 13목 약 1,000종 4,800개체 채집</b>	
<b>1987년(조원 유혜정)</b>	
6. 26-27일 26: 10-12시, 漣川 新西面 天德山, 夜月山, 27: 白鶴面 板浮里, 高浪浦里.	
6. 29-7.2일 29: 坡州 長湍 巨谷里, 漣川 津東面 龍山里, 30: 파주 郡內面 대성동, 1: 金浦 霞城 柿岩里, 佳金里(애기봉), 月串面 文珠山, 2: 江華 喬桐島, 兩寺面 鐵山里.	
8. 12-14일, 12: 全谷 新西面 高臺山(27R 1BN), 天德山, 13: 高浪浦里, 초리, 연천 帽山面 아미리	
8. 17-18일, 17: 喬桐島 월구리(水晶山), 고구리(광업소 입구), 18: 외포리↔虬音島, 요옥산 입구↔나루	
<b>총 14목 약 600종 2,365개체 채집</b>	

3,500원의 수당이 지불되었고, 출장 때마다 위험수당으로 1일 500원씩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출장에서 어떤 사고를 당해도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라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지뢰지대를 돌아다녔으며, 그에 따른 생명수당을 받았던 것이다.

**DMZ에서의 조사 실태**

출장에서 가장 먼저 부딪치는 애로는 조사현장에 도착하는 문제였다. 당시는 도로가

아주 나빠서 해당 부대까지 가는 것 자체도 만만치 않았다. 경춘 국도는 비포장에다 전 구간이 온전한 2차선도 아니었다. 현지 근처까지 갔어도 모든 조사지가 민간인 출입금지 지역인 만큼 관할 부대장을 만나서 출입허가와 길안내를 받아야 했다. 대개 사단장, 때로는 군단장이나 연대장을 만나야 했는데, 장군을 만난다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었다. 좀 심했던 경우로 전곡에서 양구를 거쳐 속초 지역까지 조사하려던 68년 5월 5-9

일의 활동을 보자. 5일은 전곡에 도착했으나 부대장을 만나지 못했고, 6일은 아침 8시 40분에 출발하여 20사단, 6군단, 5군단, 6사단, 7연대, B-1초소를 거쳐 이동(二東)의 여관 도착으로 하루를 보냈고, 7일은 사창리와 사단 합동초소, 15사단을 거쳐 대성산에서 15분 정도 채집 후 양구에 도착했으며, 8일은 사단과 연대를 거쳐 9시 50분부터 10시 45분까지 대암산의 큰용늪 주변에서 채집 후 속초에 도착, 9일은 상경하는 것으로 끝맺었다. 결국 닷새 동안 1시간 남짓의 채집이었다. 게다가 장군들은 대개 학자 신분인 조사단을 큰 손님으로 본 것 같다. 부대장실에서 차 대접은 기본이고, 부대현황 등을 브리핑하려 하든가 다른 대접을 제의해 오기도 했다. 우리의 급박한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67년 8월 서부지역에서 당한 일이다. 현지에 도착하니 옥도에 풀이 무성한 초지여서 곤충을 찾아보기조차 어려웠다. 그래도 2m쯤 앞의 풀 위에 어떤 곤충이 앉아있기에 포충망을 들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4명의 사병이 사방을 향해 ‘받들어총’을 하고 사주경계를 한다. 내가 놀랐는데 곤충인들 그대로 있으랴, 어느 종류였는지 생각조차 안 난다. 그러지 말아 줄 것을 부탁하고 좀 더 찾아다니는데 웬 병장 한 명이 나타난다. 사실은 일등병 주제에 가짜 계급장을 단 방첩대원이다. 내 카메라를 보더니 핵 낚아채서 뚜껑을 열고 필름을 주르륵 뽑아버린다. 일행 모두가 똑같이 당했다. 우리는 촬영허가를 받았다고 항의했으나 자기는 상부 명령이 없었으니 제 마음대로라는 특수부대 전성시대였다.

68년 6월 16일, 고성군의 향로봉은 산 정상 OP에서 산등성을 타고 내려오는 소로가 있었다. 100미터쯤 내려오니 바른쪽 아래의 꽃에 다양한 곤충이 모여들어 아주 화

렷했다. 포충망이 맞지 않아 숲으로 한 발짝 내려섰는데 OP 쪽에서 아우성 같은 고탐소리가 들려온다. 소대장이었다. 막 나오라고 손짓을 하며 미확인 지뢰지대란다. 가슴이 뜨끔했다.

이 글을 쓰는 동안 격세지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뉴스 두 가지가 보도되었다. 하나는 글쓰기를 시작했을 무렵 나온 것으로, 우리가 DMZ 조사를 착수한 1967년 7월에 5명의 어부가 납북 당했다가 한 달 만에 귀환하자 간첩 누명을 썼다. 사건 43년 만에 무죄선고로 인권회복을 꾀했으나 그들 모두는 이미 옥살이 후 고문후유증으로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한 다음이다. 정치인은 오늘날도 오직 당파싸움에 전념하는 이때 누가 무엇으로 그들의 억울함을 보상할 수 있으랴! 오늘은 원고를 보강하려는데 새로운 뉴스가 나온다. DMZ가 생태관광단지로서의 조건을 갖추었고 작년(2009)에 다녀간 사람만도 300만 명이나 된단다. 그래서 2,600억 원을 투자하여 정식 단지를 조성해야겠단다. 이것도 당파싸움과 돈벌이에 눈먼 자들의 오산에서 나온 착각은 아닌지 잘 검토해 볼 일이다.

#### 협회에서 나는 누구였나

DMZ 조사가 유명무실해진 뒤 협회는 1970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매년 특정지역을 선정, 동식물생태의 종합학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첫해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와 소흑산도, 1971년도는 울릉도, 오대산과 소금강일대를 조사했다. 그전인 1968년에는 잡지 “자연보존”을 창간했는데 초기는 좀 불규칙했으나 1970년대 후반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4번을 발행하는 계간지가 되었다. 1979년부터는 여러 학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그 결과를 “한국자연보존연구보고서”로 발행하였다. 1996년에 “한국생물상연구지”를 발행하자 이제는

협회 논문집이 너무 다양해서 불편하고, 무엇보다도 경비가 많이 들었다. 그래서 2003년에 논문류는 거의 모두 “한국자연보존연구지”로 통합하여 발행하였다.

그동안의 발간물에서 곤충에 관한 것을 찾아보았다. 수서곤충은 저서대형무척추동물, 군집구조, 수질관련 위주인 것은 제외하고 분류나 상(相, fauna)에 관한 것만 추렸으나 그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았다. 어쨌든 전체를 어렵게보니 특정지역 조사결과인 종합학술조사보고서(A)는 총 50지역에서 74편, 자연보존연구보고서(B), 생물상연구지(C) 및 자연보존연구지(D)는 각각 17~12편의 총 43편이 실려 곤충 분류관련 논문 류 전체는 약 110편에 달했고, 계간지 자연보존(E)에도 논문과 곤충관련 기고문 30~40편이 실렸다. 연인원이 아닌 개별 투고자는 거의 100명에 육박했고, 여러 명의 공동 보고서가 많았다. 발간물 별로 각 논문의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총원, 총 논문 편수, 다수 집필자를 알아보니 다음과 같았다.

- A: 18+43=61명, 74편 : 김진일 18, 김창환 12, 신유항 10, 남상호 8, 윤일병 4편.
- B: 13+11=24명, 17편 : 김진일 6, 문태영 4편.
- C: 7+11=18명, 12편 : 김진일 5편, 손재천, 김성수, 신유항(이상 공동) 2편.
- D: 10+22=32명, 14편 : 김진일 7, 김태우 4, 김정규, 김아영 각 3편.
- E: 곤충학자 20여명의 기고문 30~40편 중 분류 관련 30편 정도 : 신유항 7, 윤일병 5, 김창환, 김진일 각 4편. 일반상식, 국제학회, 농약, 기타 : 김창환 15, 이병훈 6, 김진일 2건.

이상의 통계를 보면 협회가 1968년부터 2009년까지 42년간 발표한 곤충분류학 관련 문헌과 기고문은 총 140편에 달했는데 그중

필자가 40편 집필로 가장 많이 참여했다. 다음은 신유항 18, 김창환, 윤일병 각 12편의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필자는 협회와 진정 끊을 수 없는 인연이 맺어졌음을 극명하게 드러낸 셈이다.

### 3. 신나는 결과에는 댓가가 있는 법

####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내가 제일 먼저 참여한 종합학술조사는 1971년 8월의 울릉도(鬱陵島)였고, 세 번째는 다음해의 해남 대둔산(大屯山)에서였다. 두 번 모두 과욕과 방심에 따른 실수로 길을 잃고 헤맸었다. 당시는 지금처럼 교통이나 통신이 원활치 못했던 점도 추억의 하나가 된 것이다.

울릉도 조사단은 단장 박만규 교수(전 고려대)를 포함한 13명이었는데 중고교 교사 7명, 3개 신문사 기자 6명 등이 합세하여 총 26명의 대식구가 되었다. 7일 아침 8시 대절 버스로 동대문을 출발하여 오후 3시경에 포항에 도착한 것으로 첫날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7시에 탄 청룡호가 10시간 만에 도동항에 도착했고, 여관에 짐을 풀 것은 거의 6시 반경이다. 9일 아침 8시 여관을 나와 성인봉을 넘어 나리동까지 등산로를 따라 채집하기로 했는데, 12시 반경 상당히 많이 올라간 위치에서 바른쪽으로 갈라진 샅길을 보았다. 그 안쪽에는 작은 물이 흐르는 것 같았고 채집해보고 싶은 길이었다.

혹시 많이 들어갔어도 길을 되짚어 나왔어야 했는데, 산에 대해 무식했던 나는 질러가려다 3시간 이상 조릿대 밭에서 헤맸다. 조금밖에 안 들어갔다는 생각에 성인봉으로 직행하려다 당한 일이다. 다음 등성이나 봉오리를 오르면 성인봉일 줄 알았는데 웬걸, 조릿대에 미끄러지면서 3개, 4개, 5개의 산모퉁이를 돌아도 등산로는 나오지 않았다. 1:50,000 지형도는 가지고 있으나 현재의 위

치를 모르니 그게 무슨 소용이람. 어쨌는지 더는 생각도 안하지만, 오후 4시에 갑자기 만난 산등성이가 바로 성인봉이었다. 점심은 소금을 조금 섞은 주먹밥을 도시락 대신 호박잎에 싸서 먹었는데 인부를 시켜 몽땅 성인봉에 올려다 놓았다. 내가 길을 잃어 헤맨다는 사실조차 아는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가 거기에 남아서 내 점심을 챙겨줄 리도 없지. 더욱 터무니없는 일은 해매는 중 큰 나무 위에서 내려다보는 고양이를 만났는데 별 무서운 생각이 다 들었다. 이 섬에는 야생 척추동물이 개구리 한 종뿐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랬으니 얼마나 웃기는 일이었더냐!

대둔산에서 돌아올 때는 버스로 12시간이 걸렸지만 갈 때는 광주까지 비행기로 갔다. 비록 창문들이 덜렁거리는 비행기였을망정 당시의 조사치고는 그야말로 호화판 여행이었다. 숙소는 대흥사(大興寺) 입구의 선우여관, 셋째 날(8월 16일)은 개별 조사였는데, 10시경까지 절 주변에서 채집하다 좀 멀리가보려고 지도를 꺼냈다. 남쪽으로 한 뼘쯤 거리에 마침 아는 사람의 동네가 있다. 한 뼘이면 10km 미만일 테니 그 집에서 점심을 먹고 되돌아와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으로 출발했다. 12시나 1시쯤은 동네를 만날 줄 알았는데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 2시쯤 이상해서 지도를 꺼내보니 이제 겨우 절반을 조금 넘었다. 거리를 앞잡아보고 느긋했던 게 문제였지만 도중에 언덕, 구부러진 길 따위를 계산에 넣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는 채집보다 동네를 빨리 지나서 큰 길로 나가 버스로 돌아갈 참이다. 4시경 겨우 동네에 도착했는데 시골치고는 상당히 큰 마을이었다. 그런데 한창 농번기라 거의 모든 집이 텅 비어 있었다. 돌아가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 본부에 연락하려고 전화를 찾았더니 오직 이장 댁의 한 대뿐이란단다. 그 집도 빈집이라 그냥 찾길로 나왔다. 몇 시간

을 기다려도 지나가는 차가 한 대도 없다. 드디어 해가 지려는 8시 5분, 트럭 한 대가 먼지를 날리며 달려온다. 세워서 사정을 말했다더니 가는 길에 해남행 버스가 있는 황산리까지 태워주겠다고. 거기서 9시 5분 막차를 타고 해남읍에 도착하니 밤 10시였다. 정류장 근처의 경찰서에서 아주 큰 전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온다. 나는 무조건 뛰어 들어가며 그거 나요, 나, 나요, 나를 찾는 것으로 직감했고, 사실도 그랬다. 한 달 전에 옆의 두륜산 절벽에서 강풍을 맞은 여교사한 명이 추락사한 일이 있어서 더욱 걱정을 했다.

#### 이른 봄에 살무사 이빨에 찢리다

1972년 4월 18일, 고려대 생물학과 2학년 생들을 데리고 경기도 광릉으로 야외실습을 갔다. 새봄을 맞은지라 후배 조교들도 우르르 따라나섰다. 채집이 처음인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가다가 개울둑에서 여기저기에 수십, 어찌면 수백 마리가 뭉치를 이른 살무사떼를 만났다. 월동하고 쏟아져 나온 녀석들이니 겁 없이 포충망에다 네댓 마리를 훑어 담았다. 학생을 모아 둘러 세워놓고 뱀 잡는 방법을 가르칠 참이다. 내 눈은 학생을 향했고, 손은 포충망 곁에서 뱀의 머리를 잡는다. 안 보이는 물체라 겁이 난다. 머리임을 느끼자 엄지와 검지로 꼭 잡았는데 너무 썩다. 뱀 이빨이 제 턱을 뚫고나와 내 검지까지 찢렸다. 당시 채집 가방에는 별의별것이 다 있었다. 고무줄을 찾아 끝마디를 찡찡 감고는 종일 채집하며 돌아다녔다.

실습 후 청량리로 나오면 헤어지기 전에 막걸리 한잔이 관례였고 이 날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묽은 손가락이 좀 켕긴다. 딱 한잔만 하고 자리를 양보하여 문 앞쪽에 자리 잡았다. 잠시 후 슬슬 어지러운 기운이 돈다. 학생들이 나를 들쳐 업고 길

건너 성모병원으로 갔다. 찢린 자리는 새카맣게 멎든 모습인데, 의사가 보더니 일언반구도 없이 메스로 뺨 돌려 원추형으로 파낸다. 아얏 소리와 함께 어지러움의 전말을 알았다. 양보했던 자리 근처에서 피어오르는 연탄난로의 일산화탄소를 맡았던 것이다. 하지만 손가락에는 이미 큰 상처가 생겼고 많이 피곤했다. 대학 졸업 무렵부터 5년 뒤 처음으로 집에서 며칠간 쉬어보았다.

1984년 7월에는 자연보호중앙협의 계획인 전남 여천군 거문도(巨文島)를 조사했는데, 첫날인 10일부터 비가 오더니 13일 오후에 가서야 그쳤다. 축축한 날씨지만 여학생 조교 1명과 동도(東島)를 조사하다가 사방 5미터도 안될 만큼 작게 갈아엎은 밭에서 갑자기 따사로운 햇빛을 만났다. 주변에 길이 없어서 밭을 가로지를 판이며 그런 곳은 흔히 무심코 지나간다. 하지만 지금은 울퉁불퉁함이 좀 심하다는 느낌에 밭을 내려다보니 살무사가 따리를 틀고 있다. 조교를 조심시키며 둘러보니 대충 한 발짝 거리의 돌출부 모두가 한 마리씩에게 점령당했다. 여러 날을 움츠렸던 녀석들이 일광욕을 하러 나온 것인데, 지금은 한여름이니 광릉에서처럼 방심할 때가 아니다. 밭조차 디딜 곳이 없으니 도리가 없다. 되돌아가자.

#### 조사단을 실은 배가 전복되다

1993년도 협회 종합조사는 8월 2일부터 일주일간 여천군 금오열도(金鰲列島)에서 하기로 했다. 첫날은 금오도 우학리에서 야간채집을 했으며, 3일은 두모리 조사였으나 비가 심해서 오후 작업은 포기했다. 4일은 바람이 쐬었다. 5일은 강풍이 더 심했는데 연도리(鰲島里)에 갔다가 2시 45분 우학리로 돌아올 배를 탔다. 배(전남 517호)는 FRP 제품으로 여천군의 것이다. 동행했던 MBC 방송국 PD가 절벽 근처의 습새 촬영에 열을 올리자 기

관사도 신기해서 점점 그쪽으로 향했다. 15시 15분, 배가 막대기처럼 가느다란 물속 암초를 받고 오른쪽으로 90도 가량 넘어졌다. 뱃전에서 구경하던 조교들이 우수수 바다로 떨어졌고, 당시 1억짜리라는 MBC 카메라도 물밑에 가라앉았다.

정말 희한한 일은 되뜩한 갑판 위에 자리잡은 팀장급은 한 명도 안 빠졌다. 다만 조타실에 있던 단장만 갑자기 실내로 밀어닥친 물속에서 허우적거렸다. 갑판은 손가락보다 가는 철제 난간 한 가닥이 둘러쳐졌는데, 맨 왼쪽에 자리 잡았던 나는 그것을 잡고 추락을 면했다. 잠시 만감이 스쳤다. 채집생활로 4반세기를 보냈고, 수영은 못하는 내 생애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래도 이상할 만큼 차분했을 뿐 흥분되지는 않았다. 뱃전을 찰랑거리는 물에 포충망이 뚱뚱 떠 있다. 다리를 뻗어 밭목에 걸어 올려 다시 20여년을 썼다. 이제는 완전히 낡았는데 버리지 않았다. 별로 기념이 될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다. 약 2분 뒤 어찌된 일인지, 배가 저절로 일어섰다. 빠진 조교들이 뱃전에 매달리자 너무 가벼운 배라 다시 뒤집혔는지도 모르겠다. 마침 근처에 짐을 싣고 가던 거룻배가 있었고, 우리를 배웅한 연도리 이장은 항로가 수상해서 줄곧 지켜보고 있었다. 사고 즉시 빈 배를 몰고 와 빠진 사람을 구출했고, 항해불능인 배도 끌어왔다.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다. 조사원들의 성격상 배가 없어져서 남은 일정을 버리고 돌아갈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근처 내륙지방이라도 조사한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태풍이 몰려오니 그것마저 허사다. 6일 오전 평가회를 마치고 여수에 도착하니 16시 30분, 마침 17시 서울행 새마을호가 있다. 자정 무렵 집에 도착하니 와있던 손님과 함께 식구들이 놀란다. 예정보다 빠른 귀가의 단순한 놀람보다는 계획적인 불심검문이라는 식의

놀람이다. 저희와 영원히 이별할 뻔했다가 돌아왔는데, 사정을 들을 생각조차 안하는 안식구의 태도에 기가 막혔다.

**줄기차게 따라다니는 악천후**

장기조사는 대개 여름방학 전후에 이루어져 장마철과 겹치는 수가 많고, 기상악화는 조사를 망치거나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먼저 불안했던 예와 씩씩했던 예부터 들어보자.

1998년 협회 조사지는 경북 선달산(先達山)과 어래산(御來山)으로, 단장은 필자로 정해졌다. 조사단은 지질과 수환경을 포함한 8개 팀, 세분하면 곤충 6개 반을 포함한 15개 반의 36명으로 구성된 대규모였다. 첫날인 6월 29일, 곤충반은 숙소인 부석면 남대리에서 야간채집을 했다. 다음날, 오전은 날씨가 좋았는데 오후가 되자 비가 온다. 4시경 폭우로 변하더니 7월 3일 오후에 가서야 겨우 멎었다. 비가 동물반에게는 치명타인 경우라도 식물반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 이날(30일)도 식물반 한 팀이 조사를 나갔다가 저녁때 돌아왔는데, 대원중 최고령에 환갑을 넘은 한 분은 없었다. 일행은 도중에 헤어졌을 뿐 낙오라는 생각은 안했던 것이다. 깜깜할수록 폭우가 더 심하다. 온몸이 젖었을 테니 체온 저하로 인명사고가 염려되어 모두가 조바심이었다. 그 팀이 그날 코스를 뒤밟아 결국은 찾아왔으니 천만다행이다. 아무리 난코스라도 평생 겁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날 처음 공포심이 일었다는 당사자의 말이었다.

1994년도 협회 조사지는 소백산이었고 8월 1일 저녁에 단양에서 발단식을 갖기로 했다. 도로사정이 무난한 곳이라 고려대에서 조교 한 명을 태우고 13시에 출발했다. 중부고속도로를 들어선 잠시 후 태풍과 폭우가 몰아친다. 시야를 가려 앞차 비상등을 보고 쫓아가다가 다행히 음성 분기점을 찾아 들어 수안보까지 갔다. 폭우는 멎었는데 도

로가 좀 부실한 곳에 이르자 차들이 죽 밀려있다. 나무가 쓰러져 길이 막혔고 치우는 중이란다. 별수 없이 기다리는데 바로 앞차인 택시 위로 지름 20cm 가량의 나무가 또 쓰러진다. 내 차는 아니고, 택시도 심하게 쭈그러들지 않아 다행인가!?

강 건너가 단양인데 또 많은 차량이 서 있다. 앞길이 끊겼는데 복구를 기다렸던 모양이다. 되레 더 악화됐다는 소식에 먼 길을 돌아 예정된 여관에 도착하니 벌써 잠자리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다. 대개 여러 지방에서, 또는 지방을 갔다가 일찍 다른 길로 온 사람들이라 내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저 왜 이제 왔냐는 핀잔뿐, 저녁식사도 이제 찾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비웃는다. 참으로 섭섭하고 야속했다.

1975년도 협회 조사지는 원주 치악산(雉岳山)이었고, 조사원은 20명이 채 안 되는 소규모였다. 첫날인 7월 28일은 폭우상태였으나 구룡사(九龍寺)에 도착하니 비가 그쳐 야간채집까지 했다. 소문에는 평소 술과 고기를 즐기던 중이 어제의 폭우에 떠내려갔단다.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니 더 이상은 아는 게 없다. 어쨌든 연이틀 좋은 날씨에 종일 조사를 하고 저녁때 여관으로 모여 들었다. 계곡 깊숙이 자리 잡은 여관이라 힘들게 오르며 찾아갔는데 사람이 안사는 집처럼 적막했다. 모두 갈증이 나서 막걸리를 한잔했으면 딱 좋겠는데, 알아보니 한말밖에 안 가져왔단다.

하나같이 눈치만 보고 있는데, 평소에 약주를 좋아하며 정식 단원이 아니면서 동행한 거물급 교수 한 분이 넋지시 하시는 말씀, “술맛은 50이 넘어야 알겠더군!” 50세가 아직 까마득한 이 줄병들은 약 오름과 씩씩함을 노인네들 앞에서 드러낼 수도 없으니 뒷전에서 불평을 표출할 수밖에. 지금은 고인이 된 그 분이 우리의 심정을 모르고 하

신 말씀은 아니겠지. 대가족에게는 모자랐던 음료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야겠지.

한여름의 방안은 답답하니 마당에서 서성거렸다. 땅거미가 짙게 깔리는데 좁고 긴 마당에서 암컷 장수잠자리 한 마리를 수컷 두 마리가 뒤쫓는다. 지상 1미터 정도에서 나는 데 마당이 작아 왕래의 폭이 좁다. 포충망 아가리를 달려오는 암컷에게 댔다가 다시 180도로 꺾 돌렸더니 세 마리 모두가 걸려 들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내 솜씨에 감탄한다. 여러 사람 앞에서 실력을 발휘했으니 막걸리 한잔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은 받은 셈이겠지.

1987년 7월, 옹진군 백령도(白翎島) 조사 때였다. 24일 12시에 인천 부두에서 LST를 탔다. 3시에 출발하더니 다음날 아침 10시에 백령도 용기포에 도착했으니 22시간동안 배를 탄 셈이다. 다음날 비가 조금 오더니 27일은 폭우가 중부지방을 강타하여 내륙과의 교통이 두절된다. 작은 섬에 갑자기 대식구가 들어갔으니 식료품 조달에 문제가 생기고, 조사를 못하니 대낮부터 화투놀이로 시간을 때우다가 판돈으로 동네 개를 잡는다. 전의 모 장관과 친척이던 분이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군부대 경비정으로 섬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31일 오후 1시에 출발하여 폭우와 거친 파도 속 해상에서 배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2시간 만에 탈출했다.

#### 4. 해안 사구성 곤충 조사

잡히는 족족 신종 아니면 미기록종

프랑스에서 지중해안의 사구곤충을 연구하면서 한국 땅은 3면이 바다인데 이제껏 어느 누구도 해안 조사를 한 일이 없다는 생각이 났다. 유학에서 돌아가면 우선 국내 사구부터 조사해야겠다. 1978년 늦가을에 귀국했으니 그해는 넘기고, 1979년 5월에 태안반도부터 채집을 시작했다. 성신여대에서

6월에 교수자리가 결정되었고, 7월초에 3,4학년 학생의 해양 및 야외실습이 있었다. 장소는 경북 영일군 일대였으니 실습지도는 내가 자청할 판이다. 8일 월포에서 모래를 퍼 채질을 했다. 채질은 모래를 걸러내고 곤충만 남기는 채집방법이다. 첫 채질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풍뎡이 그룹의 미기록과이며 신종인 녀석 몇 마리가 걸려들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더냐! 한 시간 남짓의 채질에서 신종 약 30개체와 미기록 모래풍뎡이 한 종 등의 70여 개체가 채집되었다. 돌아와서 연구해보니 다른 한 종도 신종이다. 녀석은 성신여대와 맺어진 인연을 기념하여 종명을 성신(*sungshinarum*, 여성 복수)으로 하였다.

약 열흘 뒤 협회 조사인 전남 신안군(新安郡) 도서지방에서도 2 신종과 6 미기록종을 발견하였다. 이때부터 2002년까지 해안사구나 강변모래밭 60여 지역에서 총 114종의 곤충을 찾아냈는데 그중 5 신종을 포함한 55종과 미기록과 9, 즉 전체의 절반을 새로 찾아냈으니 내 스스로 가슴 뿌듯함을 구태여 숨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동해안에서는 도둑질하듯,

남해안에서는 엉뚱한 곳에서 채집하다

강원도 해안은 사구나 모래가 잘 발달하여 흥미로운 채집지였다. 특히 삼척 맹방리(孟芳里) 해수욕장은 폭이 지금보다 몇 배는 넓었고, 신종 모래풍뎡이도 나왔다. 하지만 여러 지역이 사구 위에 해상침투 간척을 막으려는 철조망이 쳐졌고, 채집하기 좋은 자리는 군인이 보초를 선 해변 쪽이다. DMZ 조사 때 군대와 접촉이 어떤지를 잘 아는 내가 아니더냐! 줄병에게 출입을 부탁했다가는 국방부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절차가 한두 달로는 어렵었을 테고, 허가도 못 받겠지. 할 수 없다. 초병이 안 보이는 뒷자락에서

살금살금 할 수밖에.

1982년도는 협회 연구비로 남해안 사구곤충을 조사했는데, 완도군 신지도(薪智島)를 매달 주기적인 정량채집지로 정했다. 양력으로 내 생일인 5월 27일, 혼자 용산에서 아침 7시 40분 버스를 타고 광주를 거쳐 완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신지도를 갈수 없는 시간이다. 여관을 정한 뒤 택시를 타고 망남리 해안으로 갔으나 모래밭이 물속인 지역이었다. 지형도만 보고 어렵게 찾아갔다 이런 경우를 종종 만났다.

다음날 아침 9시. 부두로 갔더니 평소에 표를 팔던 50대 가량의 남자 대신 부인이 나와 있다. 신지도 표를 요구하자 한 시간 뒤에 배가 있는데 벌써 왔다면 신경질만 부린다. 마침 그 건물 위층이 다방인지라 커피를 한잔 마시고 9시 35분쯤 내려왔더니 배가 저만큼 가고 있다. 다음 배는 오후에 있다가 기가 막힌다. 지금 정박 중인 배는 청산도(靑山島) 행이란다. 그 배로 갔다가 오늘 돌아올 수 있는지를 물었더니 그렇단다. 오전 시간을 허비할 수 없으니 신지도는 내일 가기로 하자.

11시 45분 청산도에 도착하니 경찰이 쫓아와 조사를 하겠다. 교수신분증까지 보여주며 목적을 말했으나 채집 자체를 모르는 주제에, 신분증 안가지고 다니는 간첩 있느냐며 되레 큰소리다. 한술 더 뜨는 소식, 여기는 들어온 배가 다음날 나가는 섬이란다. 아침부터 이것저것 참으로 말문이 막힌다. 경찰에서 풀려나 해안을 돌아보니 적당한 채집지가 없고, 해는 중천에 떠있는 한낮이다.

재빠른 조사와 귀가 욕심에 체, 핀셋, 빈병 몇 개만 챙겼을 뿐, 책 따위는 전혀 없으니 더욱 난감했다. 높은 축대 위의 여인숙(明燈山)이 눈에 띄어 잠자리는 해결되겠는데, 내일까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 들을 쏘다니며 소똥구리를 채집하다가 6시경 여

인숙을 찾아갔다. 저녁식사를 부탁했다. 공무원 생활에서 퇴직하고 고향에 돌아왔다는 주인 남자가 밥은 안 판단다. 당신 먹는 밥에 한 그릇 더 놔달라고 사정해서 겨우 저녁을 해결했다. 방에 가서 팔베개를 하고 누웠더니 아직도 이글거리는 해가 눈과 정면으로 마주친다.

참으로 한심한 시간을 보내다가 어두워질 무렵 피딱 생각 하나가 떠올랐다. 여인숙 축대 밑의 맞은편 집 창가에 맥주병이 진열되어 있었다. 찾아가 한 병을 주문했더니 30세, 어찌면 그 미만의 젊은 여인이 나와, 여기서 먹지 왜 가져가느냐고 묻는다. 여기는 식당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식당 겸 주점이란다. 마침 잘되었다. 그러나 하마터면 귀신도 모르게 남해의 바다 속에서 불귀의 객이 될 뻔했던 일이기도 했다. 사연은 이 글의 말미에서 다시 마련해보자.

### 5. 분식성곤충의 조사

똥 뒤지기로 내 청춘을 다 날렸다

사구성 조사에서 똥똥똥이과(Aphodiidae)에 속하는 모래똥똥이 신종들을 발견했지만 소똥구리 무리도, 똥똥이 무리도 우리나라는 체계적인 연구, 특히 분류학적 연구가 거의 없기에 이 그룹을 연구하기로 했다. 모래똥똥이는 이미 개관이 섰으니 녀석들이 소속된 똥똥똥이과부터 착수해야겠다. 그런데 국내 어디에도 표본이 없다. 게다가 소똥구리도 없으니 모든 종을 내손으로 채집할 수밖에 1981년에 시작한 채집이 1992년까지 열을 올렸고, 2000년까지도 기회가 있으면 게을리 하지 않았다. 똥똥이 무리 전체에서 15신종, 30 미기록종을 찾았는데 겨우 3신종, 6 미기록종뿐인 소똥구리 무리가 40~50대의 내 청춘을 몽땅 날려버렸다.

처음에는 주로 소똥을 헤쳐 가며 채집했다. 하지만 여의치 않은 곳에서는 각종 동물,

개, 심지어는 인간의 배설물까지 뒤지려니  
자연히 남의 눈에 안 띄는 곳을 좋아했다.  
제주도 목장지대가 매우 좋았으나 시간과 경  
비의 제약이 너무 크다. 그래서 아침 일찍  
성북역에서 비둘기호를 타야만 하는 춘성군  
백양리(白羊里)와 서천리(西川里)를 여러 해  
동안 갔었다. 거기는 북한 강변인데 뒤쪽은  
험준한 산을 몇 십 km쯤 넘어가야 양평군  
이 되는 곳이라 주민은 없고 소는 많이 방  
목했었다. 지금은 가평에서 바로 다리로 건  
너가며 별장이 발달한 동네가 되었다.

요즈음은 대관령목장에서 채집을 하겠다면  
아마도 목장주가 환영할 것 같다. 하지만 80  
년대는 채집부터가 의구심과 경계의 대상이  
었다. 당연히 목장 주변에서 몰래 채집하는  
형태였다.

단독활동은 무리수이며 엉뚱한 일도 생긴다

1982년 이후는 대체로 혼자 채집했다. 조  
교가 여학생이라 두 명 이상과 동행하자니  
이동과 숙식 등에 제약이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에 따른 경비가 무척 늘어났다.

4월말에 경북 영덕을 간 일이 있는데, 급  
히 채집을 끝내고 다음 지역으로 이동했더  
니 대게 맛도 안보여 주었다면 투정을 부리  
는 조교도 있었다. 사실상 그때 나는 대게를  
몰랐다. 설사 알았더라도 안사람 친구들이  
교수 체면을 세워야 한다며 자칭 집값을 대  
여해줘 겨우 13평 아파트를 마련한 형편인  
데, 어찌 너희들에게 인심을 쓸 수 있으랴!  
기가 막히는 여관도 있었다. 지역 주민의 인  
권을 고려해 시간과 장소는 밝히지 않겠는  
데, 말만한 처녀 둘을 데리고 찾아간 중년남  
자가 방을 요구했더니 하나만 필요하냐고 묻  
는다. 30년 전에는 두 여자와 한 방을 쓰는  
정력가가 있었더라 말인가? 이래저래 혼자  
다니게 되었고, 그 바람에 예상치 못한 사건  
도 꽤 있었다. 앞에서의 청산도 경우도 그런

사건의 하나일 것이다.

1982년 7월, 4박5일 예정으로 남해안 조사  
를 떠났는데, 1박2일에 보성(寶城) 울포리 해  
안부터 여수, 순천, 진주, 삼천포를 거쳤다가  
다시 진주로 와서 귀가했다. 간단한 식사에  
밤차까지 이용한 무리수였고, 건강을 생각지  
않은 나 자신에게 질책을 하기도 했었다.  
1985년 10월초, 춘성군 등선폭포 윗동네(문  
배) 산속에서 소똥 밑의 땅을 열심히 파다  
가 갑자기 일어섰다. 한동안 정신이 몽롱하  
고 몸이 안 움직인다. 허파에 산소공급을 못  
한 게 원인이다. 인적이 없는 곳인데, 만일  
더 욕심 부렸다가 쓰러졌다면 무슨 일이 벌  
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1986년 10월, 지리산 일대인 구례, 남원 지  
역과 완주를 거친 다음 기차를 타러 전주역  
을 갔다. 광장 입구에 들어서니 순경이 짐  
보따리를 검사한다. 경찰복장에 총까지 들러  
뚫으나 행색과 행동은 전혀 경찰이 아니다.  
새카맣게 탄 얼굴에 굵은 손마디로 보아 밭  
에서 일하다 갓 나온 사람이니 절대로 도시  
물을 먹은 사람이 아니다. 입은 병어리, 무  
턱대고 알코올에 담겼거나 아직 정리를 못  
해 소똥 범벅 모래 속에서 벌레가 우글거리는  
병들을 몽땅 열어본다. 정말 경찰이 맞는  
지 확인하고 싶기도, 주먹으로 귀방뎅이를  
한 대 올려붙이고도 싶었다.

1986년 8월, 양평 용문사(龍門寺) 근처였  
다. 만난 소가 한 마리뿐이며 채집도 부실했  
다. 골짜기 뒤에서는 군부대의 훈련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고, 찾아다닐 곳이 마땅치  
않아 야산에서 개똥과 인분을 뒤지고 다니  
는데 웬 여대생 하나가 나타나더니 계속 쫓  
아다닌다. 나이는 많아보였고, 손에 든 가죽  
가방에는 무엇인가가 뽕뽕하게 들어서 꽤 무  
거워 보였다. 혹시 데모 주동자였다가 은둔  
생활중일까? 어쨌든 정상이 아니라 깨름칙  
했다. 아니, 신분을 몰라 겁이 났다. 나의 대

꾸가 시원치 않으니 말이 많지는 않았다. 지금 같았으면 소설가 지망생은 아닌지 알아보려 했을지도 모르나 당시로서는 나에게 그런 여유가 없었다. 떼어내려고 높은 바위 절벽을 타고 다녀도 계속 따라온다. 나는 집에 가겠다며 겨우 떼어놓았다.

1983년 10월초, 지리산 근처 양(羊) 목장 지역을 조사차 남원(南原)을 들러 구례(求禮)에 갔다가 두 여인을 만났다. 한 사람은 호기심에 조바심이 난 여관 주인이고, 젊은 처자 하나는 내가 크게 실수를 한 사람이다.

가을 행락객이 붐벼 교통편도, 숙소도 만만치 않은 계절이었다. 시내 여관에는 방이 없다. 연곡사와 가까운 내동리에서 겨우 방을 얻었는데 전에도 묵은 일이 있는 집이다. 저녁은 아직 멀었으나 오전부터 채집한 것이 많아 여관에서 정리하려고 낮에 돌아왔다. 외진 동네를 이 시간에 찾아온 남자는 뻔하다고 생각한 주인이 여자를 불러주라 고 묻는다. 물론 거절하고 방으로 들어가 대야물에 병을 쏟아놓고 조용히 곤충을 고른다. 방문 앞마루에서 그녀가 엿듣는다. 아무리 엿들어도 낮잠을 자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몰래 무전을 친다는 생각은 안했던지 간첩 신고는 안한 것 같다.

아침 출발 때는 연곡사행 버스를 탔는데 이미 자리가 없었다. 20세가량의 처녀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자리를 양보한다. 늘씬하고 흰칠한 키에 마음씨까지 고우니 더 예뻐 보였겠지. 한두 번 사양하다 자리에 앉았다. 운전기사가 출입문을 닫고는 한동안 행방불명이다. 그사이 여러 젊은 때 거리가 커다란 배낭을 안으로 던져 넣고는 창문으로 넘어 들어온다. 이마도 정원의 서너 배는 넘었을 텐데 여전히 밀고 들어온다.

자리를 양보했던 아가씨가 밀리며 고역을 치른다. 무릎에 앉기를 권했더니 순순히 앉는다. 이윽고 버스가 출발했다.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에서 전후좌우로, 상하로 마구 흔들어댄다. 한참을 가다가 갑자기 내 육체가 흥분해있음을 느꼈다. 게다가 두 팔은 처자의 앞가슴을 꼭 부둥켜안고 있다. 그녀도 나의 흥분을 모를 리 없다. 하지만 내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 옆의 그녀 친구에게 상황 힌트를 주는 격이다. 정말로 갑자기 난처해졌고, 버스에서 내렸을 때도 미안하다거나 하는 척을 할 수가 없었다.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 다시 만나면 그때의 미안함을 사과할 텐데, 그녀는 내가 누구였는지 알기나할까? 혹시 옛날의 그 일을 잊지는 않았을까?

#### 청산도 사건

인기 높은 영화 촬영지로 매우 유명해진 청산도가 지금은 환경이 무척 바뀐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처음 갔을 때는 만사가 너무도 답답했었고, 그날 저녁은 시간 때두기에 아주 좋은 장소를 만났다는 생각에 덥석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앉았다. 나를 맞았던 여인이 맥주병을 가져와 한잔 따르는데 비슷한 또래의 여자 두 명이 또 나와서 합석한다. 지금 같았으면 이렇게 엄청난 낙도, 그것도 한 집에서 세 명의 젊은 여인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부터 의심했을 것이다. 하지만 순수했던 시대에 지극히 순진했던 나는 의심할 줄을 몰랐다. 아무튼 맥주 한 병으로 네 사람의 잔을 채울 수 없으니 한 병 더 주문하여 각자의 잔을 채웠다.

겨우 한 모금쯤 마셨는데 두 번째로 나왔던 아가씨가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배가 아프단다. 그리고는 약 사먹을 돈이 필요하다고 손님인 나에게 천 원만 달란다. 좀 안됐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는 기분이 매우 묘하고 불쾌했다. 하지만 큰돈은 아니니 그냥 주었다. 첫 잔을 비우고 새 잔을 채우려다 둘러보니 들은 없어졌고 처음의 여인만

남아있다. 궁금해서 배 아프다던 여인은 어찌 되었으며, 다른 아가씨는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다. 그것도 모르냐는 답변에 더욱 의아했더니, 돈을 받은 것은 팁을 받는 수단이었다. 나는 벌컥 화를 내며 무슨 팁을 그런 식으로, 그것도 겨우 천원을 받아 가느냐고 했다. 서울 같았으면 자리에 잠시 합석만 해도 오천 원인데, 이 무슨 못난 짓이냐는 말도 덧붙였다.

여기처럼 작은 섬에서는 모든 청년이 돌아가며 장난만 칠뿐, 팁은 커녕 자칫 몸만 버리는 수가 허다하다. 그래서 그런 수단을 쓴다. 놀랍고 안 된 마음에 측은해 보인다. 이번에는 서울로 가지 않고 왜 여기에 머무는가를 물었다. 주인이 해준 한복 한 벌 값을 갚지 못했고, 다른 여인들도 비슷한 처지이며, 그것을 갚아야만 나갈 수 있다. 지금 돌아와보면 그녀는 순진한 나에게 그들의 끔찍한 세계를 감춘 것이다. 그런데 나는 불쌍하다는 생각뿐 실상은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그까짓 한복 몇 푼이나 한다고? 내가 구출해줄까? 다음날 아침에 엿저녁 일이 생각난다. 한복 값을 치루고 데려간다? 그러면 내 집으로? 아니면 어디로? 어떻게 처분하지? 두 아가씨는 어찌지? 간단치 않은 문제구나. 아니, 답변이 없는 과제이니 슬그머니 섬을 떠날 수밖에.

마치 도망치듯 섬을 빠져나온 것이 내 목숨을 건진 끔찍한 내막을 그로부터 7년 뒤에 알았다. 1989년 8월 자연보호중앙협의회 주관의 전남 영광군 안마군도(鞍馬群島) 조사가 있었다. 14일 아침 7시 서울을 출발한 조사단은 영광 군수의 점심 대접에 원자력 발전소 견학까지 마치고 4시 반에 상낙월도(上落月島)에 도착했다. 작은 마을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어촌이란 느낌은 들지 않았다. 꼬불꼬불 골목을 지나 속소로 가는데 집안의 아낙네들이 우리를 향해 휘파람을 불며 희롱한다.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희롱이란 상상도 못하던 시대였는데, 막상 당하고 보니 신기한 생각이 들기도, 어부들의 수난을 금방 이해할 것 같기도 했다.

아마도 주말(? 19-20일, 안마도)이었던 것 같다. 아침에 채집을 떠나려는데 집주인이 잠깐 소리 내지 말고 숨어있으란다. 얼기설기한 울타리 사이로 동네 아래쪽의 길을 내려다보니 청년 두세 명이 고성방가를 하며 지나간다. 안하무인의 엄청난 전과자들이며, 새우잡이 배인 멧덩구리(바다 가운데 띄어놓은 무동력선)에서 일하다 휴가를 나왔다. 그해 초였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교사가 납치당해 멧덩구리에서 몇 달 동안 새우를 잡다가 용케 탈출한 사건이 큰 뉴스거리였다. 얼마 후 교편을 떠났다는 소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의 멧덩구리 생활이 엄청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짐작할 수밖에.

서해안과 남해안의 그 많은 낙도에 다방이나 술집이 없는 섬은 거의 없는 모양이다. 지금 조사하는 섬에는 잠시 여종업원이 없다. 내막인즉, 아주 작은 섬에서는 겨우 20일 만에 동네 청년들의 흥미대상에서 벗어나는 여종업원이 생기며, 그런 여인은 다른 섬에 배치시키는 악랄한 조직이 있다. 남자를 납치하여 멧덩구리에 감금하는 집단과 같은 조직인 듯하다. 그런 조직을 거슬렀다가는 큰일 남을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았다. 옛날에 청산도에서 만난 여인들도 그런 조직의 희생양이었고, 그 내막을 몰랐던 이 숙맥은 큰일을 저지를 뻔했던 것이다.

부 록

한국자연보존위원회 공문 66014호의 1967년도 개별 조사 일정

위원	월	1	2	3	4	5	6	7	8	9	10
김준민			23				2-6		11-15	15-19	
강상준				18-20				14-19	11-15	15-19	
장남기							2-6	14-19	11-15	15-19	6-10
김봉균	10					26-30			4-9		
박용안						26-30	9-13	7-11	4-9,18-22,25-29	15-19	6-10
박만규							2-6		25-29		
정인수							2-6	28	1,11-5, 25-29		6-10
박홍덕							2-6	28	1, 25-29		
이일구					21-25		23-27			8-12	
차영일					21-25	12-16	23-27	21-25	4-9,18-22,25-29	8-12,22-26	
정영호			18-20	28	2				4-9		
강영무				28	2			21-25	4-9,25-29	15-19	
심재형				28	2			14-19	4-9	15-19	
이영노				21-25			23-27			15-19	
이유성				21-25	12-16	23-27	21-25	4-9, 18-22	15-19,22-26	6-10	
김창환						26-30			11-15		
김진일						26-30	23-27	21-25	11-15	8-12	
오진국						26-30		21-25	11-15	8-12	
윤일병	10	21.28					9-13			1-5	
김 건				9-16			9-13	7-11,21-27	18-22	1-5	
문광웅							2-6	7-11	11-15	22-26	
원병휘				9-16				21-27		1-5	
김윤산				9-16				21-27		1-5	
이해풍				9-16				21-27		1-5	
원병오						12-16			25-29	22-26	
전미자						12-16		14-19,28	1,25-29	22-26	
함규황						12-16		14-19,28	1,25-29		
최기철		23	18-20			19-23				22-26	
전상린						19-23	9-13			22-26	
최신석			18-20			19-23	9-13			22-26	
홍순우				28	2	2-6			4-9		
최영길			18-20	28	2,19-23	2-6	7-11	4-9, 18-22	22-26	6-10	
강영선	10	16,21,28	6,13,14				2-6		11-15		
방규환				9-16,21-25	19-23	2-6	7-11,21-	1, 4-9,25-29	8-12		